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5년” (시편 37편 3-6절)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나눈 인사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복(福)’에 대한 내용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福)’의 개념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복(福)’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복을 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입니다. (3절)

다윗은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본문을 통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뢰할 때 비로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삶의 자리에서의 문제나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변하게 됩니다. 2025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4절)

다윗은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한 해 가족 모든 구성원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 만으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차고 넘치게 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나의 걸음을 맡기는 삶’입니다. (5절)

다윗은 본문 5절에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너의 길’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너의 길’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 2025년 우리가 걸어갈 길 그리고 삶의 모든 계획과 목표를 포함한 모든 걸음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우리의 인생은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모두가 2025년 한 해 하나님 안에서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여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

설날 가정예배



설날 가정 예배

2025년 하나님께서 온 가족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설날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59장 다 같이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기 도 맡은 이

성경봉독 시편 37편 3-6절 인도자

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말씀나눔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5년 맡은 이
찬 송 393장 다 같이

1절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2절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3절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후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